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6주일 · 순교자 성월
제33권 43호(다해) 2013.9.29

[묵상]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 하늘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부자는 살아서 좋은 것들을 받았기에
죽어서 고초를 겪어야만 하고,
라자로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으니
저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아야만 한다는
단순흑백논리가 통하는 하늘나라인가요?

라자로는 부자에게
특별한 동냥을 하지도 않았습디다.
개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으며
그저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을 뿐입니다.
라자라에게 그것은 생명이지만
부자에게 있어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탁에서 떨어진 것을
대문 앞까지 옮겨 놓는 몇 걸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하늘나라는
부자 지옥, 거지 천국
이런 단순흑백논리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
단 몇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관심으로도
모두를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랑의 논리가 통하는 나라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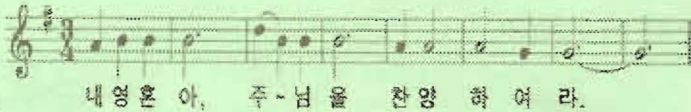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강덕희 올리아나 (생)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주 일 낮 미사	(연)이명자 토사, 이윤식 베드로, 이경용 야고보, 유정복 베네딕타, 전시웅 요한, 고준희 제임스, 주용범 아브라함, 정기범 베드로, 원종욱 스테파노 (생)박인식 토마스 & 박기원 리디아 가정, 이윤조 클라라, 최옥희 테레사, 박인규 요셉, 이형삼 요셉, 폴 노스트를, 정엘리스 클라라, 이준영 마르코 & 이제이미 크리스티나, 이남호 사라, 조은하 올리아나 & 공형식, 이상훈 프란치스코 가정, 이지원 글로리아 가정, 모호숙 클라라,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아모스 예언서(Amos) 6,1ㄱ-4-7

화답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의늘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제 2독서 티모테오 1서(1 Timothy) 6,11ㄱ-16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복 음 루카(Luke) 16,19-31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45	191	182
봉헌	주찬양합니다	257	269
성체	Heart of Worship	286	305
파견	194	339	345

올바른 성모신심

제1장 성모 공경의 역사

이렇듯 성난 파도 앞, 생사의 갈림길에서 김대건 성인이 의지한 분은 성모님이였다. 그의 성모 신심을 보여 주는 글은 이 편지 외에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1846년 11월 2일 공주 수리치골(현 공주군 신평면 봉갑리)에서 '성모성심회'가 설립되었다. 1887년에 간행된 『조선 교회 지도서』에 따르면, '성모성심회'(聖母聖心會), '매곡회', '성의회'를 1)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교회 안의 공식 신심회로 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98년에는 중현 성당(명동 성당)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봉헌되었다. 1953년 3월에는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인 '푸른 군대'가, 같은 해 5월에는 '레지오 마리아'가 한국에 들어왔다.

진출 50주년을 지낸 이들 단체는 현재 한국 가톨릭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의 본당 중심의 전교 활동과 봉사 활동은 교세 확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 1954년에는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 선포 100주년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 성모 마리아께 봉헌되었다.

오늘날 한국에 진출한 교황청 설립 남녀 수도회, 또는 한국 교회의 교구 설립 남녀 수도회 가운데에는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수도회명이 많이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우리나라 성모 공경과 무관하지 않다.

제2장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는 가톨릭 교회의 성모 공경에 관한 역사를 그대로 보여 준다.

1)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일은 초대 교회까지 소급된다. 3세기경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기도인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에 이미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고 있다.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하느님의 어머니), 저희를 지켜 주시고, 어려울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소서. 또한 온갖 위험에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 주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가톨릭 기도서 19면).

마리아의 '하느님의 어머니 되심'은 마리아께서 여신이심을 뜻하지 않고,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신성 때문이라는 사실이 에페소 공의회(431년)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런 이유로 교부들은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Theotokos)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훗날 칼케돈 공의회(451년)는 이를 재확인하였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이다. <◆계속>

부자여 삼가고 두려워하라

오늘 복음에서 이 비유 말씀의 주된 대상은 가진 자들로 보입니다.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천 년 전의 이 비유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먼저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는 개인 내지 단독 소유 관념이 현대 자본주의의 출발이요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만의 소유 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 부자가 라자로에게 한 것처럼, 바로 이웃의 고통에 눈감기 십상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더불어 자연환경 파괴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폐악을 생각해 보면, 사적 소유 관념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공유의 관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 소유의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능한 많은 영역을 공용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실은 우리 모두에게 공으로, 선물로 주어진 것임에 대한 깊은 자각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봤으면 하는 점은, 사물을 파악할 때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보며 판단하면 당연히 사물을 왜곡시키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앙의 에 의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고, 놀라운 희망을 안고 있을 따름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저 육신이 살아 있는 이 생명 내지, 삶이 전체인 양 알아듣고 행동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왜곡과 오류를 피하

기 힘들 것입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는 저울추가 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법입니다. 저승에 있는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라자로 또한, 삶과 죽음을 함께 한 전체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저울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살아생전, 죽음을 염두에 두며 얼마나 많은 행동과 생각을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때문에 현세에서 평등과 정의를 위해 투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끝으로 짚었으면 하는 점은, 이런 모든 사정을 알아듣는데 무슨 특별한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이야기하듯, 죽은 이가 살아가서 메시지라도 전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건강한 상식과 양심을 지닌 이라면 누구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회개가 필요한지 아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데 특이한 체험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부자는 더더욱, 자신이 무슨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 지극히 삼가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유시찬 보나벤투라 신부 / 예수회

부모는 -

결혼할 때 집도 받았다고, 매년 거들지 않아도 김장김치에, 수시로 벌반찬은 기본이라고, 아이들 맡겨도 싫은 내색없이 다 키워준다고, 집안 대소사에 음식 다 한 후 늦게 가도 바빠 그렇다 이해해 준다며 '결혼 참 잘했다' 좋아하고, 또 참 좋겠다 부러워합니다.

등골 휘는 줄 모르고.

◆이영 아녜스/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최보나 보나	이민상 요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이장환 마르띠노 신부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지난 4년동안 우리 백삼위 본당 신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해오신 이장환 마르띠노 신부님께서 임기를 마치고 오는
 10월3일(목) 한국 부산가톨릭대학교 정보기획처장으로
 부임하십니다.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고, 신부님의 영
 육간에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송별미사 : 오늘 주일(29일) 낮 미사

- ◆ 10월 첫목요일 성시간과 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없습니다.
 - 본당신부님의 이임/부임 관계로 10월 첫목요일(3일)의 성시간과 첫토요일(5일) 성모신심미사는 없으니 착오없이 바랍니다. 수,목,금 평일미사는 손님신부님께서 집전하여 주십니다.
- ◆ 자동차 축성식
 - 일시 : 오늘주일(29일) 낮미사후
 - 장소 : 사제관앞뜰
- ◆ 주일학교 교사 성체 · 성혈 분배교육
 - 일시 : 10월5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3시
 - 장소 : St. Monica Parish(725 California Av. Santa Monica, CA90403)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 사회복지분과 정부혜택 상담소 운영
 - 상담내용 : 오바마건강보험, 저소득층프로그램, 메디케어, 메디칼 건강보험, 정부혜택신청, 장례및 묘지구입방법 등
 - 상담일시 : 매달 첫째주일과 둘째주일은 예약없이 상담, 셋째 & 넷째주일은 전화예약자만 상담
 - 장소 : 아침미사후(첫,둘째주 강당) / 주일미사후 친교장
 - 예약전화 및 e메일주소 : 사회복지분과장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funeral1004@yahoo.com
- ◆ 미주한인의날(2014년) 기념 미술대회 개최 작품접수
 - 주최 : LA한국교육원

- 참가대상 : 유치원~12학년까지
- 작품주제 :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
- 제출기간 : 10월26일까지 LA한국교육원(680 Wilshire Pl. LA, CA 90005) 작품은 우편으로 제출 바람
- 발표 : 11월초 신문, 교육원 홈페이지
- 시상식 : 2014년 1월11일(토) LA교육원 정실관
- 문의 : ☎(213)386-3112

올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는 본당 '백삼위성당'이 주관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행사를 잘 치러지도록 협조합니다.

- ◆ 남가주성령채신봉사회 '성령체험 수기' 공모합니다.
 - 내용 : 남가주성령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기도회장 ☎(310)780-0369
- ◆ 26차 남가주성령대회 CD가 나왔습니다.
 - 가격 : \$20, 사무실에 비치중
- ◆ 친교자리 배식때 어르신들과 급한분들께 순서를 양보합니다.
 - 지난주부터 소공동체가 봉사하는 친교자리(점심나누기)가 재개했습니다. 줄서서 기다리고 음식이 오가는 과정에서 간혹 무질서한 풍경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르신들과 급한분들께 양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갑시다.
- ◆ 주보 광고에 협찬해주신 광고주들께 감사드립니다.
 -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 광고비를 보내오고 계시는 광고주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주시는 이들 업소를 신자분들께서는 가능한한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29일(주일) : 전신자 점심나누기 (토런스동1반 / 카레라이스)
 - * 주일학교(7학년 피자)
 - 10월6일(주일) : 소공동체(떡, 김밥 \$4)
 - * 주일학교(6학년 떡볶기)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교복 김병학 김성현 김원호 박봉성 박주현 서성용 신철규 안민수 안재만 양영관 엄세종 유선식 유영균 이복임 이우성 이음무 이재철 이현주 임연조 정연영 최이원 최희태 한길선례 송마이클 합계 : \$2,940	성전헌금	김교복 김병학 김원호 민기남 박주현 서성용 안민수 안재만 양영관 엄세종 유선식 유영균 이복임 이우성 이음무 이일길 이현주 최이원 최희태 한길선례 송마이클 합계 : \$2,700
주일미사 헌금 : \$3,297		감사헌금 : 이태호 채승희	

공지사항

◆ 주일학교 초등부 Back to School

- 날짜 : 10월6일(주일)
- 시간 : 오전 10시30분~오전 11시(각학년 교실)
- 대상 : 유치원~6학년 학부모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교무 ☎(310)780-8895

◆ 주일학교 앙상블 단원 모집

- 대상 : 주일학교 등록학생으로 6학년 이상
- 모집분야 : 현악기, 관악기
- 오디션 : 10월6일(주일) 낮 12시 2층 교사실
- 문의 : 크리스티나 진 음악교사 ☎(310)781-0856

◆ LA 한국교육원의 뿌리교육

- 일시 : 오늘 주일(29일) 낮 12시30분~오후 3시30분
- 장소 : 강당, 유아실
- 내용 : 두그룹으로 나누어 한국화(부채만들기), 한국무용연습
-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한국학교장 ☎(310)464-7490

◆ 주일학교 복사단 정기모임

- 날짜 : 10월5일(토) 오후 4시30분 성전
- 지참물 : 성경, 독주
- 내용 : 복사단장 임명 및 부단장 선출

◆ 주일학교 고등부 F.I.G.S. Lock-In

- 날짜 : 10월11일(금) 오후 6시~12일(토) 오전 9시
- 장소 : 본당
- 참가비 : 무료
- 문의 : 김나기 바오로 고등부 주임 ☎(310)709-3343

◆ 견진교리반 학생모집(2013~2014 학년도)

- 대상 : 주일학교 10학년~12학년
- 수업일시 : 9월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강당
- 문의 : 신동윤 빈첸시오 견진교리교사 ☎(310)744-5878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태옥 아가다 213-255-6943 10/19(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0/12(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0/11(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보테오도시오 780-3258	김충섭 마틴 490-9662 10/19(토)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크리스 아가토 999-5808 10/12(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장정진 베로니카 617-1132 10/11(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김준 방지거 968-8280 10/18(금) 오후 7시30분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박정람 마르시아 951-4710 10/9(수)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04 10/11(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권병연 리디아 404-1607 10/21(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김금자 데레사 804-7645 10/12(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재훈 필립보 377-4219 10/11(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910-9943 10/11(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김병록 요셉 818-1799 10/11(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박래경 헨리카 617-3568 10/8(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가정의 날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남가주 소식

◆ 제2기 천주교 아버지학교에 초대합니다.

- 첫모임 : 10월13일(주일) 오후 3시(매주일 5주간)
"아버지의 사랑이 가정을 세운다."
- 장소 : LA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 문의 : 오재민 바오로 ☎(562)505-8070
- 주관 : 성마태오 한인천주교회

◆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96주년 기념행사 및 미사

- 일시 : 10월13일(주일) 오후 7시
- 장소 : LA 성 바실 성당
- 미사집전 : 박대덕 스테파노 신부
- 문의 : 김국대 베드로 ☎(213)255-6336

☺ 서로 인사 합니다. ☺

가톨릭교회교리서 해설 Q/A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요?”

열 개의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습니다. 그것은 열 개 모두가 소중한다는 말입니다. 각각의 손가락은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 손바닥과 하나가 되어 수많은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첫 번째인 엄지손가락은 다른 것들에 비하여 아주 중요하며 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엄지의 부재는 손의 기능을 근본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신명 5,6-7)라는 이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것들의 근본 바탕이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됩니다. 이 첫마디는 이 땅의 5천만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헌법은 이 나라 질서의 뼈대를 이루고, 국민의 자유로운 삶과 인간적인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또 하느님을 알아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열 개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이 갖는 의미는 막중합니다. 그 계명은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드러내 줍니다. “하느님의 첫 번째 요청과 정당한 요구는 인간이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흠송하라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097항) 흠송은 성모님께서 노래하셨듯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큰일을 하셨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자신을 낮추는 흠송을 통해서 인간은 죄의 속박에서, 세상의 우상숭배에서 해방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우상숭배는 인간의 삶을 허무하게 할 뿐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우상들의 박람회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력, 쾌락, 잡신이나 마귀, 인종, 조상, 국가, 재물 등 인간이 하느님 대신에 어떤 피조물을 숭배하고 공경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느님과의 친교와 결코 나란히 갈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단한 번으로 극복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공경을 멈추는 순간 여러 가지 피조물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강한 믿음으로 잠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사도는 바람에 놀라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피조물인 바다에 빠져들어 생명을 위협받습니다.(마태 14,28-30 참조)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라.’고 한 첫 번째 계명은 확고하고 단호합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재물은 오늘날 최고의 우상이 되어 영혼을 침식하며 날마다 세력을 넓혀갑니다. 재물은

참 사랑을 위한 도구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모든 도덕적 탈선의 시작이고 이유”(「가톨릭교회교리서」 2087항 참조)라고 가르칩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성경의 첫 말씀은 성경을 끝까지 관통하며 비취 줍니다.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은 모든 가르침의 초석이며, 인간의 취약점인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그 계명은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며 최고의 유산입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마태 4,10)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인생은 희극? 비극?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보면 힘들었던 일도 여유있게 떠올릴 수 있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뜯어보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영웅호걸이라도 삶의 고통과 희로애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때론 눈물을 흘리셨고 고독과 싸우셨고 ‘근심에 싸여 죽을 지경’(마태 26, 37~38 참조)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는 게 늘 호락호락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 못 한 불행과 맞닥뜨리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자주 상처받고 때론 외롭고 오랫동안 불안과 무기력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일상을 긍정적으로 살라는 건 근거 없는 낙관에 기대거나 무리한 호언장담을 일상이라는 게 아닐 겁니다. 비극과 희극이 섞인 나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처받은 일상을 담담하게 안아주는 마음.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을 다독이고 격려하며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는 자세 아닐까요? 행복을 연구한 미국의 어느 수녀님은 “이세상의 행복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아가는 능력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일상(日常)의 한자는 태양이 매일 뜨고 지는 반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해가 뜨고 달이 지고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 일은 계속됩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창조의 질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다 마침내 창조의 시원(始原)으로 돌아가는 일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인생이 희극인지 비극인지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삶의 무게가 때론 힘들어도 소박한 나의 일상을 보듬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사는 일. 세상의 욕심을 조금씩 덜어내며 하느님 품 안으로 이어진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일이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친히 자연의 질서를 보여주시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덧 선선해진 가을바람이 참 고맙습니다.

◆탁은수 베드로 / 부산MBC 보도국 부장